

## 채만식의 풍자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 번역 양상 — 「치숙」과 『태평천하』의 영역본을 중심으로\*

한 미 애  
(동국대\_서울)

### 1. 들어가는 말

풍자(satire)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태도에 근거를 두고 성립되며... 정면으로 비판할 수 없을 경우, 측면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한 방법이다.” (이래수 1986: 85). 풍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이러니, 역설, 기지, 냉소, 해학 등 다양한 장치가 사용되는데 특히 아이러니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이러니는 풍자를 위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무기”(Mueke 1970: 80)로 활용되지만, 아이러니 개념과 장치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원천 텍스트에서 사용된 아이러니 장치를 파악하여 이를 목표 텍스트로 번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7041481]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아이러니 등의 문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목표 텍스트에 반영하는 일은 특히 문학번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학적 특성은 이야기의 내용과 이야기의 형식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베르만(Berman)도 번역을 할 때 우선적으로 “‘표현’, ‘어조’, ‘성격’, ‘천재성’, ‘본질’ 등으로 정의되는 원전의 유일무이함을 포착해야 한다.”(윤성우 외 옮김 2009: 84)고 강조한다. ‘원전의 유일무이함’은 곧 원천 텍스트의 문학적 특성이라 볼 수 있겠다.

아이러니라는 문학적 장치와 융합되어 풍자성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으로는 채만식의 「치숙」(1938)과 『태평천하』(1938)를 꼽을 수 있다. “채만식을 풍자작가로 규정할 때 ... 「치숙」과 『태평천하』에 드러난 풍자성을 염두해 두고 지칭한 것”(김진숙 1987: 14)이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친일적 성향을 가진 등장인물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구어체 풍자소설이다. 이 두 작품을 번역할 때 아이러니한 특성과 본질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풍자성의 강도가 달라져 번역된 텍스트의 문학적 특성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숙」과 『태평천하』에서 풍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된 아이러니의 특징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며, 아이러니 번역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풍자소설인 「치숙」과 『태평천하』에서 아이러니 장치의 번역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아이러니의 개념과 요소를 뮤ЕК(Muecke 1970)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3장에서는 아이러니 번역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뮤ЕК의 아이러니 요소를 중심으로 「치숙」과 『태평천하』에서 나타나는 아이러니 장치를 분석한 다음,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대조 분석하며 문제점을 논의한다. 5장은 결론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전체 논의를 요약한다. 「치숙」과 『태평천하』를 함께 분석하려는 이유는 두 작품이 구어체 풍자소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평천하』의 경우에는 목표 텍스트가 한 종류만 있어 비교해 볼 목표 텍스트가 없으므로 「치숙」의 목표 텍스트에서 나타난 아이러니 번역양상을 함께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 2. 아이러니 개념 및 요소

소설에서 아이러니 개념은 아주 포괄적이어서 아이러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형은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지만, 크게 언어적 아이러니(verbal irony)와 상황적 아이러니(situational irony)로 구분할 수 있다(Muecke 1970: 25, Cuddon 1998: 430, Leech and Short 2007: 223). 언어적 아이러니는 일반적으로 반어법이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말과 의미가 모순되는 경우 또는 말과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반대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날씨가 갓고 비가 오는데, ‘날씨 참 좋다’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상황적 아이러니는 의도한 행동과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예상한 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끼인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도리어 자신도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상황적 아이러니는 이야기 전개 구성 즉 플롯과 관련이 있으며, 세부 항목에는 극적 아이러니, 자기 폭로의 아이러니 등이 있다.

언어적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뮤엑(Muecke 1970)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과 외관의 대조(the contrast of reality and appearance)이다. 작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같이 보이면서 실제로는 아주 다른 것을 말하거나, 외관을 제시하면서 현실을 모르고 있는 체한다. 또한 아이러니 희생자(풍자 대상)는,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라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아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조가 크면 클수록 아이러니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둘째,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the element of innocence or confident unawareness)이다. 천연스럽게 자신에 찬 무지나 오만, 자만, 자기만족, 순진성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아이러니의 희생자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나 가정을 전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셋째, 희극적인 요소(the comic element)이다. 겉말과 속뜻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등장인물이 자신에 차 있거나 무지하다면 웃음을 자아내게 된다. 넷째, 거리감의 요소(the element of detachment)이다. 가벼움이나 무감정, 온후함, 객관성, 거리감은 아이러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가벼움은 희극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무감정이나 객관성 등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나 무지에 찬 아이러니의 희생자를 관

찰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서술자가 스스로 아이러니한 상황의 관찰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유감을 고양시키고 재미와 유쾌함을 자아낸다. 다섯째, 미적 요소(the aesthetic element)이다. 아이러니가 효과 있게 전달 되려면 모양을 잘 갖추어야 한다. 언어적 아이러니 뿐 아니라 아이러니한 사건이나 상황도 조화나 간결 등의 미적 특질에 따라 아이러니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뮤엑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소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희극적 요소는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에 내재되어 있다. 즉 현실과 외관의 대조,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는 우스꽝스럽고 희극적 효과를 일으킨다. 등장 인물이 표면적인 말과 그 말에 내포된 의미를 모르고 유식한 척 자신에 차 있다면 우스꽝스러움을 자아내기 때문이다(Muecke 1970: 34). 따라서 뮤엑이 제시한 아이러니의 다섯 가지 요소 중 ‘희극적 요소’를 제외한 네 가지 요소, 즉 ‘현실과 외관의 대조’,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 ‘거리감의 요소’, ‘미적 요소’를 중심으로 4장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채만식의 풍자소설은 국문학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있지만, 번역학에 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어와 영어 간 번역에서 풍자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를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지만 본 연구의 세부항목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비속어 번역과 서술방식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져있다. 우선 아이러니 번역과 관련된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난 다음, 비속어와 서술방식의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 3.1 아이러니 번역

하팀과 메이슨(Hatim and Mason 1990)은, 화자가 말하는 의미와 의도하는 의미가 다른 언어적 아이러니를 충실하게 번역할 경우, 원천 텍스트가 의도한 의미를 목표 텍스트에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목표 독자들

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두 가지 층위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뉴마크(Newmark 1993)는 풍자코미디(satirical comedy)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이러니라고 하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경우 아이러니 번역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한다. 마테오(Mateo 1995)는 영어와 스페인어 번역의 몇 가지 사례에서 원천 텍스트의 아이러니가 목표 텍스트에 강화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을 제시한다. 카드힘(Kadhim 2000)은 코란 텍스트에 나타난 아이러니를 아랍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의 전략은 직역이나 바꾸어말하기(paraphrase)라고 언급한다. 모네바(Moneva 2001)는 문화 특정적일 수 있는 아이러니 해석에 대해서 기존의 의사소통 모형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추론을 기반으로 한 적합성(relevance) 이론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번역가는 원천 텍스트에서 명시된 의사소통 의도를 추적한 다음, 목표 독자층이 여분의 처리노력 없이도 원천 독자들과 유사한 의사소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차카치로(Chakhachiro 2009, 2011)는 아랍어와 영어 간 번역을 위해 아이러니 분석 기준을 제시한다. 아이러니한 텍스트의 형식적, 수사적 장치를 알기 위해서는 발화와 담화 구조 차원의 언어적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허시(Hirsch 2011)는 유머 번역보다는 아이러니 번역에서 더 명시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덟 종류의 소설 텍스트 코퍼스를 활용하여 입증하고 있다. 유머 번역에서는 명시화 전략을 사용할 경우 그 유머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반면, 아이러니는 내재적으로 비판적인 성격을 띠므로 명시화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비판의 성질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3.2 비속어 및 서술방식 번역

김순미(2010)는 미국소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번역본 4종에 나타나는 격식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비속어와 은유, 관용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원천 텍스트보다는 목표 텍스트에서 격식성이 낮게 나타났다. 비속어 등은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문체효과나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려면 비속어 등을 번역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한다. 한미선(2011)은 소설 텍스트 세 편에서 비속어의 영한번역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원천 텍스트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속어가 목표 텍스트

에서는 상위의 격식어로 번역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문체효과가 달라지고, 줄거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한미애(2011)는 등장인물의 사고(thought)나 발화(speech)를 표현하는 서술방식을 리치와 쇼트(Leech and Short)의 이론을 토대로 『부랑일기』를 분석한다. 특히 자유직접사고/발화와 자유간접사고/발화는 번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세부항목과 관련된 자유간접발화(free indirect speech), 즉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는 화법의 예문도 소개하고 있다. “He said that the bloody train had been late.”(Leech and Short 2007: 283)에서 He said that the train had been late는 서술자의 목소리이고, bloody(지겨운)는 등장인물의 목소리이다.

#### 4. 텍스트 분석

분석 텍스트 중에서 「치숙」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순응하는 1인칭 서술자 ‘나’를 풍자하는 단편소설이다. ‘나’는 일본인 상점의 점원으로 일본인이 되고 싶어 하며 역사의식도 없고 학식 면에서 무지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오히려 일본인에게 저항하는 운동으로 병을 얻은 아저씨(오촌 고모부)를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경멸한다. 「치숙」의 목표 텍스트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목표 텍스트(TT1)는 서지문이 번역한 ‘The Idiot Uncle’(1998)이다. 두 번째 목표 텍스트(TT2)는 Bruce Fulton과 Ju-Chan Fulton이 공동 번역한 ‘My Innocent Uncle’(2005)이다. TT2는 Bruce Fulton과 Ju-Chan Fulton이 번역하고 지문당에서 출판한 ‘My Innocent Uncle’(2003)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2003년도 판은 2005년도 판과 많은 부분이 동일하므로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태평천하』는 일제식민지 상황이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윤두섭(직원) 영감을 3인칭 시점으로 풍자하는 장편소설이다. 이 장편소설에서 이야기의 플롯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여러 개의 삽화(에피소드)로 나열되어 있다. 대지주인 윤 영감은 역사나 현실에 대한 의식 없이, 일본에 저항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부의 유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장 싫어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기대를 걸었던 둘째 손자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여 경찰에 잡혀 들어가게 된다. 목표 텍스트는 천경자가 번역한 *Peace Under Heaven*(1993)만 있다. 이 텍스트는 1995년에 한국문화예술재단의 번역상을 받았다.

뮤엑이 제시한 아이러니 요소, 즉 ‘현실과 외관의 대조’,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 ‘거리감의 요소’, ‘미적 요소’는 「치숙」과 『태평천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텍스트에서 아이러니 요소를 드러내는 세부 장치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치숙」과 『태평천하』의 아이러니 장치

아이러니 요소	「치숙」의 장치	『태평천하』의 장치
현실과 외관의 대조	언어적 아이러니(반어법)	언어적 아이러니, 윤행감의 저속성과 서술자의 격식성
무지나 순진의 요소	무지함을 드러내는 어휘, 비속어, 지역방언	
거리감의 요소	서술자의 무지로 인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격식성 높은 ‘입니다’체 서술, 자유간접발화
미적 요소	구어체 서술 (‘-어요’나 ‘입니다’의 종결어미, 비속어, 지역방언, 현재시제)	

아이러니의 네 가지 요소와 각각의 장치를 중심으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겠다.

#### 4.1 현실과 외관의 대조

현실과 외관의 대조는 주로 말하는 것과 의도한 것이 대조를 이루는 언어적 아이러니로 나타난다. 언어적 아이러니는 겉말과 속뜻이 반대되는 반어법이라는 수사적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는 「치숙」과 『태평천하』라는 소설의 제목과 특정 어휘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치숙」이라는 제목은 작가가 전하고자하는 의미와는 정반대이다. 서술자인 ‘나’는 아저씨에 대해 세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숙부라고 생각하고 경멸하는데, 사실은 서술자가 더 무지하고 어리석다. 작가는 ‘나’의 관점에서 제목을

어리석은 숙부 즉 치숙(痴叔)이라 했지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일제강점기에서 일본 여성과 결혼하여 일본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것이다. 치숙을 TT1에서는 ‘Idiot Uncle’이라 번역하였고, TT2에서는 ‘Innocent Uncle’이라 번역하였다. ‘idiot’의 의미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a person of subnormal intelligence)이고, ‘innocent’의 의미는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lacking in sophistication or worldliness)이다. ‘innocent’이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그 의미는 정반대일 수 있다. 즉 순진하다는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내포한 의미는 세상을 모르는 숙맥이나 어리숙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데에는 innocent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태평천하』의 제목에서도 언어적 아이러니가 사용되어 작가가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윤 영감은, 일제강점기는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대라고 믿는다. 작가는 아이러니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런 윤 영감을 풍자한다. TT에서도 ST의 아이러니한 표현을 살려 ‘Peace Under Heaven’으로 번역하였다. ‘태평천하’라는 제목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모두 제목처럼 ‘Peace Under Heaven’으로 번역하여 풍자성을 반영하였다.

「치숙」의 경우, 제목 이외에 언어적 아이러니에는 ‘양반’이라는 표현이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양반’은 신분을 나타낼 때 사용될 뿐 아니라 일반 남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문맥에 따라 남자를 높이거나 홀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텍스트에서 ‘양반’은 서술자인 ‘나’가 아저씨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 두 목표 텍스트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문 1)

ST: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양반 받드느라 싫바느질이야, 남의 집 폼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P45-46)

TT1: It's my aunt, my nice, kind, gentle aunt who keeps him from starving, what with sewing and washing for others, peddling cosmetics, or doing what ever work she can come by. (P44)



TT2: Thank God for my aunt. She's so kind and gentle. She does piecework sewing, goes to other people's houses and does their wash, sells cosmetics — all so she can serve her dear husband. But what she makes from such miserable work is barely enough for them to scrape by. (P97)

‘알뜰한 남편양반’은 ‘나’가 아저씨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아주머니는 아저씨에게 20여 년 동안 소박을 맞았기에 ‘나’는 아주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T1에서는 대명사 ‘him’으로 처리해서 아이러니한 표현이 사라졌고 문맥에 특별한 효과를 주지 않는다. TT2에서는 ‘her dear husband’로 번역하였다. 이 표현의 겉뜻은 사랑스런 남편이지만, 속뜻은 형편없는 남편이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아이러니한 효과가 난다.

(예문 1) 이외에도 ST에서는 ‘그 양반’이나 ‘우리 아저씨 양반’ 등의 형태로 ‘양반’이라는 어휘가 총 16회 나온다. TT1에서는 ‘he’나 ‘him’으로 8회 번역되었고, uncle로 7회, the fool로 1회 번역되었다. TT2에서는 ‘fine gentleman’으로 14회, uncle로 2회 번역되었다. TT2의 ‘나’는 아저씨를 부를 때 ‘좋은 신사’ 또는 ‘좋은 양반’이라고 호칭하지만 사실 그 속뜻은 겉말과 반대이다. ‘나’는 대학교까지 나온 아저씨가 일자리 없이 빈둥거리고 사회주의 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세상일에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러니 측면에서 보면 TT2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태평천하』에서 제목이외에 사용된 언어적 아이러니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2)

ST: 그리고 울음을 진정하고는, 불끈 일어서 이를 부드득 갈면서  
 “오—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또한 웅장한 절규였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선언이  
 었고요. (P48)

TT: After calming himself a bit, he suddenly sprang up and, grinding his teeth, yelled,

"Very Well! Let everyone else go to hell!"

It was a grand exclamation, indeed, and a great proclamation. (P43)

위의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는 말은 윤직원 영감이 부르짖는 소리인데, 놀부 심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에 대해 아이러니스트인 작가는 ‘웅장한 절규’, ‘위대한 선언’이라고 아이러니하게 표현하여 윤 영감을 풍자하고 있다. TT 또한 ST의 언어적 아이러니를 ‘a grand exclamation’, ‘a great proclamation’로 적절히 번역했다. ST에서 ‘웅장한 선언’이라는 아이러니한 표현은 모두 3회 나오는데, TT에서도 이 수사법을 살려 ‘grand declaration’ 등으로 번역했다. 이 이외에도 (예문 5)에서처럼 ‘좋은 세상’, ‘고마운 세상’ 등 언어적 아이러니는 목표 텍스트에서도 문맥에 맞게 대체로 적절히 번역되었다. 그 밖에 결말과 속뜻이 다른 아이러니와 이에 대한 번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작가는 겉으로는 그 등장인물을 좋게 이야기하는 듯하나 의도한 의미는 풍자하려는 것이다.

<표 2> 『태평천하』에서 사용된 언어적 아이러니

ST	TT
큰 대문은 결단코 열어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 집의 <u>엄한 가헌</u> (?)입니다. (P70)	that the main gate should never be left open was <u>a sternly enforced constitutional law</u> in Master Yun's household, as the whole family knew. (P25)
<u>그 위대한 사진</u> (P70) [변변찮게 기부한 후 신문사로 보낸 사진]	<u>that photograph had become a treasured family heirloom.</u> (P66)
성명은 <u>전대복(全大福)</u> 인데.... 이름대로 복인 온전코 크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u>오히려 박복했지요.</u> (P118)	His full name was Chon Tabok.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t meant " <u>Great Perfect Happiness.</u> "... his happiness had been neither perfect nor great. <u>On the contrary, his life had been quite devoid of happiness.</u> (P115)
결국 2전 5리를 아끼려던 것이, 그 갑절 5전을 득했으니, <u>치부꾼으로 그런 규모가 어디 있겠습니까.</u> (P118)	In the end his endeavor to save two and a half <i>chon</i> ended up saving Master Yun twice as much. <u>What money-manager possibly could better that?</u> (P115-116)
<u>이 좋은 세상을 백 살을 못 살고서 죽</u>	for Master Yun, the mere thought of

어버리다니, 그건 도저히 원통하고 섭섭해 못할 노릇입니다. (P218)	leaving his wealth behind and parting with <u>such a wonderful world</u> was intolerable. (P216)
---	--

『태평천하』에서는 <표 2>와 같은 언어적 아이러니를 통한 대조 이외에도, “저열하고 천박한 정황에 대해 격식 있는 경어법이 쓰여 대비, 부조화가 빚어짐으로써 반어와 풍자에 호응하기도 한다”(김홍수 1997: 38). 즉, 서술자의 ‘입니다’라는 경어체와 윤 영감의 욕설이 섞인 경망스러운 말투와 태도는 아이러니하게 대조를 이루어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경어체 종결어미 ‘입니다’는 번역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상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입니다’체는 4.4 ‘미학적 요소’에서 다루는 구어체와도 관련이 있다.

#### 4.2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는 아이러니를 일으키며 동시에 우스꽝스러운 운 희극적 효과를 일으켜 등장인물을 풍자할 수 있다. “악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비난하려는 풍자가는 현명한 체하거나 덕이 있는 체하는 등장인물로 하여금 자기 모순적인 논쟁을 하게 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그 인물을 풍자 할 수 있다”(Muecke 1970: 59). 풍자 대상인 「치숙」의 ‘나’와 『태평천하』의 윤 영감은 개인적으로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일제식민지에 대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된다.

「치숙」의 경우, ‘나’는 아저씨를 어리석은 숙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나’다. ‘나’의 무지함을 엿볼 수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3)

ST: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P45)

TT1: My uncle? Oh, you mean that husband of the lady who's my father's first cousin? The one who went around preaching . . . what do they call it? . . . socialism in his youth and went to jail because of that, and is now sick in bed with tuberculosis? (P43-44)

TT2: My uncle? You mean that fine gentleman who married my father's cousin, the man they put in jail when he was younger on account of that darned socialism, or scotchalism, or whatever you call it, the one who's laid up with tuberculosis? (P97)

ST의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는 작가가 개정판에서 ‘사회주의라더냐, 막덕이라더냐’로 수정하였다. 여기서 막덕은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사람이나 행위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서술자는 막걸리와 막덕을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학식이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초판에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TT1에서는 socialism이라고만 번역하여 막걸리라는 의미도 막덕이라는 의미도 생략하였다. TT2에서는 ‘socialism, or scotchalism’이라고 번역하였다. scotchalism은 scotch(스카치)와 socialism에서 alism을 합성하여, socialism과 scotchalism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 낸 어휘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무지의 요소라는 측면에서 TT2의 번역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이 예문 이외에도 ST에서 사회주의는 18회가 나오는데, TT1에서는 아저씨가 한 말이든 ‘나’가 한 말이든 모두 socialism으로 번역되었다. 반면 TT2에서는 아저씨가 한 말은 socialism으로 ‘나’가 한 말은 scotchalism으로 차별화하여, 서술자의 무지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상 상실될 수 있는 지역방언의 이미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투리와 비어와 캐리커처를 사용함으로써 무식하고 터무니없는 인물을 실감 있게”(송하춘 1994: 85) 묘사하는 채만식 풍자소설의 특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지의 요소는 역사의식에 무지하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나’는 조선인이면서 스스로 종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여, 일본이나 일본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문 4)에서처럼 ‘내지’, ‘내지인’이라고 표현한다. 내지라는 어휘는 종주국이

종속국(식민지)에 대해서 제나라나 본국을 뜻한다. 즉 ‘나’는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문 4)

ST: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같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 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래야지 최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를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최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아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P55)

TT1: Not only will I marry a Japanese woman, but I will change my name to a Japanese name, too, and live in a Japanese house, wear Japanese clothes, eat like the Japanese do, give Japanese names to my children, and send them to Japanese schools. . . .

It must be to Japanese schools that my children will go. The Chosŏn schools, they're so dirty, my children would be ruined. . . .

And I wouldn't speak this language any more either, but speak only the national language. You have to live like the Japanese do first. That's the way earn money like the Japanese. (P50)

TT2: A wife from the home country — that's only for starters. I'll change my name to home-country style, same with house, clothes, food, I'll give my children Japanese names and send them to a Japanese school here.

Japanese schools, they're the thing. Chosŏn schools are dirty — just perfect for turning out rotten kids.

And I'm going to kiss the Chosŏn language goodbye and use only the national language.

Because once I've taken up home-country manners I'll be able to put together a lot of money, just like a home-country man. (P103)

ST의 ‘나’의 “내지 지향은 극히 반어적인 풍자”(강태근 1992: 115 재인용)

이다. 하지만 TT1에서는 ‘내지’와 ‘내지인’을 ‘Japan’, ‘Japanese’라고 일반화해서 표현했다. TT2에서 ‘내지’는 ‘home country’로 ‘내지인’은 ‘Japanese’와 ‘home-country man’으로 병행하여 번역함으로써 ‘나’가 일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TT2는 ‘나’가 일제강점기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담아내었고 동시에 아이러니 효과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조선인이면서 일본어를 ‘국어’라고 지칭하는데, 이 표현은 두 텍스트에서 모두 ‘the national language’로 번역하여 ‘나의 친일파적인 성향을 드러내주었다. 하지만 TT1에서는 ‘조선말’을 ‘this language’로 번역하여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소 모호하여, 뒤에 나오는 the national language도 조선말을 가리키는 것인지 일본말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졌다. TT2에서는 ‘the Chosŏn language’로 번역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치숙」의 ‘나’처럼 『태평천하』의 윤 영감도 (예문 5)에서처럼 일제강점기가 좋은 세상이고 태평한 시절이라고 확신하며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좋은 세상’, ‘고마운 세상’, ‘태평천하’라는 언어적 아이러니를 통해 윤 영감을 풍자한다. TT에서도 ST의 의도를 살려 ‘thank you’, ‘wonderful world’, ‘peace under heaven’ 등으로 언어적 아이러니와 풍자성을 적절하게 번역하였다.

(예문 5)

ST: “……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P241)

TT: "Don't ever forget to thank you lucky stars we live in this wonderful world, where the Japanese have mobilized a huge army, hundreds of thousands of soldiers, to protect us Koreans! It's a world of peace where we can keep what is ours and live in comfort! Peace under heaven, that's what it is! Peace under heaven..." (P240)

윤 영감은 역사적 상황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이 드러날 뿐 아니라 상스러

운 욕, 비속어 등을 많이 사용하여 천박한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 그에 따라 독자는 윤 영감의 확신이나 판단이 옳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윤 영감을 풍자하는 효과는 커지게 된다. 우선 윤 영감이 며느리에게 습관처럼 욕을 퍼부어내는 장면을 살펴보자.

(예문 6)

ST: “그랬으리라! 짜 찢을 년!……”

윤직원 영감은 며느리더러 이렇게 욕을 하던 것입니다. 그는 며느리뿐 만 아니라 딸이고 손자며느리고, 또 지금은 죽고 없지만 자기 부인이고, 전에 데리고 살던 첩이고, 누구한테든지 욕을 하려면 우선 그 ‘짜 찢을 년’이라는 서양말의 관사(冠詞) 같은 것을 붙입니다. 남잘 것 같으면 ‘잡어 뽑을 놈’을 붙이고……

“짜 찢을 년!…… 아, 그년은 글씨 무엇하러 밤낮 그렇기 싸댕긴다냐?”  
(P30-31)

TT: "I don't doubt it! Frigid bitch!"

Thus Master Yun curse his daughter-in-law. This label, "frigid bitch," was for him a standard tag, sort of like a pronoun in a Western language. He always used it, whether the object of his curses was his daughter-in-law, his own daughter, a granddaughter, his dear departed wife, or his former concubine. As for men, he generally called them bastards whose balls should be cut off.

"The frigid bitch! Why does she have to be forever sauntering off on outings?" (P26-27)

(예문 6)의 ‘짜 찢을 년’은 ‘The frigid bitch’로 적절히 번역되었다. ‘짜 찢을 년’을 포함하여 윤 영감은 ‘...년’ 등 상스러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총 51회 나타났다. TT에서 ‘The frigid bitch’로 번역된 것을 포함하여 ‘little bitch’ 등으로 번역된 경우는 29회이고, ‘silly’로 약화된 경우는 5회이다. 이러한 비속어 번역은 이야기의 내용 상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무식을 통한 자기 폭로적 아이러니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TT에서 무지의 요소가 ST에 비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비속어를 살려서 번역할수록 윤 영감의 무지함과 천박함은 더 드러날 수 있고 풍자성은 더 커질 수 있다.

### 4.3 거리감의 요소

자유감, 천연스러움, 객관성, 무감정, 가벼움 등을 내포하는 거리감은 아이러니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거리감은 “독자가 이야기나 인물에 자신을 동일시해 몰입하지 않도록 비판적 거리를 유지”(김홍수 1997: 28)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거리감은 「치숙」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a unreliable narrator)”(Booth 1970)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술자의 지적 특성은 우리 판단에 더 중요하다...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품의 전체효과는 달라진다”(Booth 1970: 158). 서술자인 ‘나’가 무지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나’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고 거리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태평천하』의 경우에는 “감정 개입을 최소화하여 객관적”(김순미 2010: 127)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입니다’체의 서술로 나타나고, 등장인물과 독자와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자유간접발화 등의 서술로 나타나기도 한다.

「치숙」의 경우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되는데, 풍자대상인 ‘나’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이다. 앞의 (예문 2)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야기 시작부터 ‘나’는 천연스럽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독자는 ‘나’를 의심스럽게 지켜보게 된다. 그러다가 ‘나’의 역사의식이 드러나는 (예문 3) 부분에서는 ‘나’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로 판명나므로 독자는 ‘나’와 거리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거리감은 아이러니의 효과를 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지를 나타내는 어휘의 번역에 따라 ‘거리감의 요소’ 번역의 적절성도 좌우될 수 있다.

3인칭 서술시점의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말을 전달하는 서술방식으로 독자와 등장인물과의 거리감이 형성될 수 있다. “말과 생각을 제시하는 방식은 관점, 톤, 거리를 다양화하는 수단으로”(Leech and Short 2007: 279) 사용되기 때문이다. 서술방식 중에서 전지적 작가시점에 해당되는 자유간접발화(free indirect speech)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인용표시 없이 대신하여 독자에게 들려주는 형태여서 독자는 등장인물의 목소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거리감으로 자유간접발화는 아이러니의 매개체로 사용된다.”(Leech and Short 2007: 268). 이러한 경우는 (예문 7)의 비속어 ‘짜 찢을 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문 7)

ST: 윤직원 영감은 것처럼 부민관의 명창대회로부터 돌아와서, 대문 안에 들어서던 길로 이 분풀이, 저 화풀이를 한데 얹어 그 알뜰한 삼남이 녀석을 데리고, 머느리 고씨더러, 짜 깃을 년이니 오두가 나서 그러느니, 한바탕 귀먹은 욕을 걸찍하게 해주고 나서야 (P54-55)

TT: On his return from the Festival of Great Singers, Master Yun entered the house and, in the company of the witty Samnam, freely vented his accumulated anger by calling his daughter-in-law names behind her back. (P50)

(예문 7)의 경우처럼 서술자가 윤 영감이 사용한 비속어를 서술했을 경우에는 자유간접발화로 작용하게 된다.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 인물의 말을 듣기 때문에 아이러니 효과가 난다”(한미애 2011: 267). 이 비속어로 윤 영감의 목소리나 관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짜 깃을 년’의 번역은 삭제되어 아이러니 효과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전체에서, 서술자가 사용한 ‘짜깃을 년’, ‘...년’ 등의 비속어는 22회이며 그 중 번역된 경우는 6회이다.

또한 3인칭 서술시점의 소설에서 거리감은 서술자가 스스로 아이러니한 상황의 관찰자라고 의식하는 자유감을 고양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써 아이러니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아이러니의 관찰자가 스스로를 관찰자로 자각하는 경우 자신의 자유감을 고양시키고 평온하거나 즐거운 기분, 심지어 환희의 기분을 자아낼 수 있는 경향이 있다.”(Muecke 1970: 37). 이러한 경우는 (예문 8)에서 볼 수 있다. 서술자는 자신이 풍자대상인 윤 영감을 관찰하는 관찰자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독자에게 상기시킨다.

(예문 8)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P10)

(예문 8)에 해당되는 부분은 번역이 생략되어, 서술자가 곧 풍자대상의 관찰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사라졌다. 이 예문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

게 구성되어 있고 이야기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아이러니의 요소 중 가벼움을 높여 풍자효과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심슨(Simpson 1998: 75)도 “서술자가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나 판단을 제시할 경우 종종 아이러니”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망스럽습니다’라는 표현은 짧지만 아이러니와 풍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방언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지역방언은 번역이 불가능하므로 지역방언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번역하는 것은 아이러니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텍스트에서 번역을 생략함으로써 일정 부분 아이러니 효과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4 미적 요소

미학적 특질을 함축하는 문체는 아이러니 효과를 고조할 수 있는데, 「치숙」, 『태평천하』의 경우 아이러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미학적 특질은 구어체 서술이다. “구어의 대담한 활용 등 여러 문체 요인과 기법들이 풍자, 반어의 효과를 높이고 풍부하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김홍수 1997: 28). 이러한 구어적 서술은 「치숙」, 『태평천하』와 채만식의 다른 풍자소설을 차별화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풍자소설에서 구어체를 사용하게 되면, “구어적 매체를 통해 청중들과의 집단적 공감대를 형성”(나병철 1998: 200)할 수 있다. 즉 서술자는 독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함께 풍자대상을 비판할 수 있다. 특히 뚜렷한 플롯 없이 여러 개의 삽화들로 구성된 『태평천하』의 “구어적 서술방식은 플롯의 인과율이 미약함으로써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삽화들의 결합력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나병철 1998: 290) 이러한 구어체 서술은 ‘이예요’, ‘입니다’ 등의 종결어미와 비속어, 지역방언, 현재시제 등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었다’로 서술하는데, 「치숙」에서는 ‘이예요’, ‘입니다’, ‘다우’ 등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방식은 서술자가 마치 독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예문 9)를 살펴보면, ST에서는 서술자가 독자 앞에서 직접 이야기 하는 것처럼 ‘요’, ‘입니다’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종결어미와 전라도 지역방언이 영어에는 없다는 것이 번역할 때 문제가 된다. 구어체 서술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자.

(예문 9)

ST: 공부를 다 마치고 오더니만 그답에는 그놈의 짓에 디럽다 발광해 다니면서 명색 학생 출신이라는 딴 여편네를 얻어 살았지요. 그 여편네는 나도 몇 번 보았지만 쌍관대기라고 별반 출 수도 없이 생겼습디다. 그 인물로 남의 첩이야?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 사실 소박맞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 여편네게다 대면 월등 예뻐다우. (P47)

TT1: Why, after he came back from his studies, he just jumped into that God-damned thing, socialism, like crazy, and got himself a so-called educated woman, I saw that mistress of his three or four times, but believe me, she was no beauty, that woman. How could a woman presume to be a man's mistress with that kind of face? Well, there's an old saying that beauties get cast aside but the ugly ones don't. Anyway, my deserted aunt was at least five times as pretty as that mistress of his. (P45)

TT2: No sooner did he finish his studies and come home than he went nuts over that damned scotchialism and got himself another woman, one of those “educated women,” you know? I've seen her a few times and that puss of hers is not about to catch anyone's attention. Beats me how a woman who looks like that can be someone's mistress. They say pretty women are jilted but ugly women aren't, and it's a fact that if you stack up my aunt against that woman, then my aunt is prettier by a long shot. (P98)

ST의 구어체 종결어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TT1과 TT2에서 ‘there’s’, ‘don’t’, ‘aren’t’ 등의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고, TT2에서는 특히 ‘you’, ‘you know’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서술자가 독자와 친근하게 대화하는 듯한 효과가 난다. (예문 9)의 TT1에서는 ‘you’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you’, ‘you know’ 등을 사용하여 대화체의 효과를 낸다. 텍스트 전체를 살펴보면, ‘you’는 TT1에서 15회, TT2에서 47회 사용되었다. 한국어에서 종결어미는 문장마다 사용되므로, 효과 면에서 보면 ‘you’를 더 많이 사용한 TT2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예문 9)의 ST에서는 종결어미 뿐 아니라 ‘그답에는’, ‘그놈의 짓에 디럽다 발광해’, ‘여편네’, ‘쌍관대기’ 등 비속어의 서술로 구어체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놈의 짓에 디립다 발광해’의 번역을 살펴보면, TT1에서는 ‘God-damned thing, socialism, like crazy’라 하였고, TT2에서는 ‘nuts over that damned scotchism’이라 번역하였다. ‘미친’에 해당하는 ‘crazy’와 ‘nuts’를 비교해보면 nuts가 더 비격식적이다. 또한 ‘쌍판대기’를 TT1에서는 뭉뚱그려서 ‘no beauty’라 하였고 TT2에서는 ‘puss’라는 속어를 사용하였다. ‘월등’을 TT1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여 ‘at least five times’로, TT2에서는 비격식적 표현을 사용하여 ‘by a long shot’으로 번역하였다. ‘believe me’와 ‘Beats me’를 비교해보아도 TT2가 비격식적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TT1보다는 TT2가 비속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어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구어적 문체는 현재시제에도 나타날 수 있다. 「치숙」의 ‘나’는 독자에게 자신이 겪거나 경험한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 현재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술자는 ‘이예요’라는 경어체와 함께 현재시제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예문 10)에서도 ‘나’는 지난 이야기와 함께 현재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치 독자와 대면하여 대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 (예문 10)

ST: 더구나 우리 같은 놈은 언문도 그런대루 뜯어보기는 보아도 읽기에 여간만 폐롭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언문하고 까다로운 한문하고를 섞어서 쓴 글을 뜻을 몰라 못 보지요. 언문으로만 쓴 것은 소설 나부랭인데 읽기가 힘이 들 뿐 아니라 또 죄선 사람이 쓴 소설이란 건 재미가 있어야죠. (P58)

TT1: For the likes of us, we can manage to read the Chosŏn alphabet, but it's not very easy. We can't understand things written in difficult Chosŏn alphabet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Those written only in the Chosŏn alphabet are novels, and believe me, they *are* hard to read. Besides, the novels Chosŏn people write are not the least bit interesting. (P52)

TT2: Plus, for guys like us, even when you wade through the Korean in there, it's god-awful difficult to understand.

So when they combine difficult Korean with complicated Chinese, you

can't make out the meaning and so you don't read it. There are these stupid stories written in Korean; they're hard to read, and what's more, stories written by Chosŏn people put me to sleep. (P105)

(예문 10)의 TT1과 TT2는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ST의 구어적 특성을 살려 대체로 현재시제로 번역하였다. 이 예문 이외에도 TT1과 TT2는 현재시제를 통한 구어체의 특성은 잘 드러났다. 이러한 서술자와 독자와의 대화적 특성은 『태평천하』의 TT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치숙」의 경우처럼 『태평천하』에서도 대화문을 제외한 서술문에서는 대체로 현재로 처리되어 있다. 이 소설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11)

ST: 윤직원 영감은 명창대회를 무척 좋아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돈만 빼놓고는 둘째가게 그 명창대회란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본이 전라도 태생인 관계도 있겠지만, 그는 워낙 남도 소리며 음률 같은 것을 이만저만찮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깐으로는, 일년 삼백예순날을 밤낮으로라도 기생이며 광대며를 사랑으로 불러다가 듣고 놓고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자면 일월 돈이 여간만 많이 드나요!

아마 일 년을 불박이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느 권번이나 조선음악연구회 같은 데 교섭을 해서 특별할인을 한다더라도 하루에 소불하 10원쯤은 쳐주어야 할 테니, 하루에 십 원이면 한 달이면 삼백 원이라, 그리고 일 년이면 3천…… 아유! 그건 윤직원 영감으로 앉아서도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게시리 큰 돈입니다. (P15-16)

TT: Master Yun was greatly enamored of the Festival of Great Singers. With the exception of money, it was the thing he liked best in the whole world.

That Master Yun was born down in Cholla Province helps to explain his love of song; he was uncommonly enthralled by the sounds of the south. Since he loved music so much, he would have liked nothing better than to bring singing courtesans—*kisaeng*—and traveling troupes of mask dancers into his house three hundred and sixty-five days a year, but that would have cost an enormous sum. If he determined to do so every day

a year, perhaps a discount could be arranged by dealing with one of the *kisaeng* associations or the Korean Music Research Institute, but even then the expense would run to at least ten *w n* a day, three hundred a month, three thousand a year. . . . Whew! That was too much money for Master Yun even to think about spending. (P12)

(예문 11)의 TT에서는 윤직원 영감이 경험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해주듯이 과거시제로 서술하고 있다. TT에서는 아이러니라는 문체효과 대신 규범화를 택하여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경험한 바를 전하게 되므로 과거시제로 서술하기 때문이다. TT에서 텍스트 전체의 서술을 살펴보면 현재형으로 번역된 것은 윤 영감 이야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실 등을 이야기할 때이다. 현재시제 장치는 서술자가 여러 독자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직접 전함으로써 아이러니 효과를 높여주는 데에 기여하므로, TT의 아이러니한 효과나 풍자성은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구어체를 통해서 아이러니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번역에서도 최대한 구어체를 살리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4.5 분석결과 및 논의

뮤엑이 언급한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치숙」의 TT1 *Idiot Uncle*에서는 아이러니의 네 가지 요소 즉, ‘현실과 외관의 대조’,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 ‘거리감의 요소’, ‘미적 요소’가 약화된 형태로 번역되었다. 반면 TT2 *Innocent Uncle*는 TT1에 비해 네 요소 모두 최대한으로 번역되었다. ‘현실과 외관의 대조’는 걸말과 속뜻이 다른 언어적 아이러니 장치(반어법)로 주로 나타났고, ‘치숙’과 ‘양반’ 등의 어휘로 표현되었다. TT1의 *Idiot Uncle*은 TT2의 *Innocent Uncle*보다 ‘백치’의 의미가 지나치게 강한 것으로 보였다. TT1에서 ‘양반’은 ‘he’나 ‘uncle’로 처리되어 문맥에 특별한 효과를 주지 않았다. 반면 TT2에서는 ‘fine gentleman’ 등으로 번역하여 아이러니를 드러냈다.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는 등장인물 스스로 무지하다는 점을 폭로하여 주로 아이러니한 상황과 희극적 효과를 유발하였고,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더냐’, ‘내지인’ 등의 어휘로 표현되었다. 이 표현은 TT1에서 각각 ‘socialism’, ‘Japanese’으로 일반화되어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나’의 무지가 어휘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TT2는 ‘socialism or scotchism’로 번역하였고 특히 ‘home country’라고 번역함으로써 일본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몰지각을 더 잘 드러내었다. ‘거리감의 요소’는 1인칭 서술자인 ‘나’의 무지가 드러날수록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므로 거리감을 가지고 관찰하게 된다. 따라서 ‘무지의 요소’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거리감의 요소’ 번역이 좌우되었다. ‘미적 요소’는 독자와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구어체 서술로 표현되었고, 종결어미, 비속어, 현재시제 등으로 나타났다. TT1과 TT2에서는 모두 현재시제로 서술하였다. TT1보다는 TT2에서 영어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you, you know, well을 줄임말과 비속어와 더불어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아이러니 요소를 통해 풍자효과를 잘 살린 텍스트는 Idiot Uncle보다는 Innocent Uncle로 볼 수 있겠다.

『태평천하』의 TT Peace Under Heaven에서는 ‘태평천하’, ‘위대한 선언’ 등 언어적 아이러니 장치를 통해 ‘현실과 외관의 대조’가 표현되었다. TT에서도 각각 Peace Under Heaven, grand exclamation 등으로 아이러니한 표현이 대체로 잘 드러났다. 또한 ‘입니다’라는 경어체와 윤 영감의 천박한 비속어 사용도 대조를 이루었지만, 종결어미 번역이 불가능하여 이 부분은 상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는 풍자대상인 윤 영감의 상스러운 비속어 등이나 몰지각한 역사 의식으로 드러났다. 윤 영감이 대화문에서 사용한 비속어는 일정부분(51회 중 34회) 번역되었는데, 대화문의 비속어 번역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서술문에 섞인 비속어 번역이었다. 서술문의 비속어는 아이러니 요소 중 거리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거리감의 요소’는 서술자가 등장인물 윤 영감의 목소리를 인용표시 없이 간접적으로 전하는 자유간접발화로 윤 영감과 독자의 거리감 형태로 표현되었다. 자유간접발화의 형태로는 윤 영감이 사용하는 상스러운 비속어 등이 서술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번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22회 중 6회). ‘미적 요소’는 독자와 유대감을 돈독히 하여 풍자대상을 함께 비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삽화 형식을 보다 유기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어체 서술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TT에서는 현재시제를 대체로 과거시제로 번역하고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서술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구어체 서술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소설은 일반적으로 과거로 서술되므로, 현재시제를 과거시제로 번역

하는 것은 규범화 현상을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이러니의 요소 중 네 가지가 약화되어 번역된 *Idiot Uncle*과 ‘거리감의 요소’와 ‘미적 요소’가 잘 번역되지 않은 *Peace Under Heaven*에서는 아이러니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아이러니 요소]의 일부분만을 지니고 있거나 약화된 형태로 이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전연 아이러니가 아니거나 사이비 아이러니로밖에는 여겨지지 못할 것이”(Muecke 1970: 25)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러니의 요소를 각각 최대한으로 번역할수록 아이러니 효과는 커지고 더불어 풍자효과도 극대화된다.

풍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이러니 장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번역해야 한다는 점은 스퍼버와 윌슨(Sperber and Wilson 1995)이 제시한 최대의 적합성(maximal relevance)으로도 근거를 들 수 있다. 최대의 적합성이란 화자(작가)는 청자(독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노력이 다소 들더라도 문맥에 적합한 효과를 최대화하고, 또한 청자는 소통된 정보에 함축적인 의미나 화자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유추하여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에서는 목표 독자가 쉽게 읽게 하기 위한 가독성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적 특성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대함으로’ 살려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의연, 한미애 2012: 199). 아이러니의 각각의 요소에는 소설의 인물을 효과적으로 풍자하려는 작가가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아이러니 요소를 최대한 반영해야겠다.

*Peace Under Heaven*에서 자유간접발화 등의 ‘거리감의 요소’나 구어체 서술의 ‘미적 요소’에 나타난 아이러니 번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플롯의 논리보다는 인물·환경의 형상화 방법에 의존하는 풍자소설에서는 특히 언어적 서술방식이 중요하다”(나병철 1998: 287). 즉 풍자소설은 독자와 함께 풍자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므로 풍자대상의 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서술방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이러니와 풍자 효과를 위해서 구어체 서술이나 자유간접발화 등의 서술을 번역하는 것은 중요하다.



##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풍자소설인 「치숙」과 『태평천하』에서 사용된 아이러니 특성을 뮤엑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번역 텍스트에 따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 아이러니 요소는 서술방식과 관련이 있는 ‘거리감의 요소’와 ‘미적 요소’이었다. 「치숙」의 목표 텍스트 Idiot Uncle과 Innocent Uncle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풍자대상인 ‘서술자’의 무지를 통해 거리감을 나타내고 비속어와 현재시제 등을 번역함으로써 구어체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반면 『태평천하』의 Peace Under Heaven에서는 이 두 요소의 번역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 서술문에서 표현된, 윤 영감의 상스러운 비속어 등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대체로 번역하지 않아 거리감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현재시제를 주로 과거시제로 번역하여 미적 요소에 해당하는 구어체 서술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아이러니 장치로 사용된 현재시제의 대화체나 자유간접발화 등의 서술 방식의 번역은 풍자대상을 형상화하고, 독자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풍자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데에 중요하다. 특히 구어체 서술의 번역은 장편소설에서 느슨해질 수 있는 삽화들의 나열을 응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이러니 요소를 통한 풍자효과를 위해서도 내용 뿐 아니라 형식에 해당하는 서술방식의 번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러니 요소는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유기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한 장치를 번역하지 않으면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이러니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 풍자 효과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태근 (1992) 『한국현대소설의 풍자』, 서울: 삼지원.  
 김순미 (2010) 「문학 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59.

- 김진숙 (1987) 「채만식 소설연구」, 『서원대학논문집』 20: 1-29.
- 김홍수 (1997) 「채만식 소설의 문체: 「痴叔」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32: 27-58.
- 나병철 (1998) 「구어체 소설과 또다른 근대의 기원」, 『비평문학』 (12): 196-225.
- 송하춘 (1994) 『채만식: 역사적 성찰과 현실 풍자』, 서울: 건국대학교.
- 윤성우, 이향 옮김 (2009)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 독일 낭만주의 문화와 번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 이래수 (1986) 『채만식 소설연구』, 서울: 이우.
- 조의연, 조성은 (2013)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텍스트의 문장 종결부 분석-스카즈(skaz) 내러티브 사례」, 『번역학연구』 14(4): 141-62.
- 조의연, 한미애 (2012) 「최대의 적합성으로 본 자유직접화법: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1): 177-203.
- 한미선 (2011) 「비속어의 영한번역 사례연구: 격식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281-303.
- 한미애 (2011) 「서술의 다양성을 번역하기: 『부랑일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1): 263-83.
- Booth, Wayne Clayson (1970)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Chakhachiro, Raymond (2009) 'Analysing Irony for Translation', *Meta* 54(1): 32-48.
- Chakhachiro, Raymond (2011) *Translating Iron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London: Distribution & Translation.
- Cuddon, John Anthony (1998) *A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 Literary Theory*, fourth edition, Oxford & Malden: Blackwell.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Hirsch, Galia (2011) 'Explications and Other Types of Shifts in the Translation of Irony and Humor', *Target* 23(2): 178-205.
- Kadhim, Qays Amir (2000) 'Translating Irony in the Quranic Texts - A Contrastive Study of Yousif Ali and Pickthall', *English Translations, Language in India* 9(3): 28-39.

-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Longman.
- Mateo, Marta (1995) 'The Translation of Irony', *Meta* 40(1): 171-78.
- Moneva, Ma Ángeles Ruiz (2001) 'Searching for Some Relevance Answers to the Problems Raised by the Translation of Irony', *Revista Alicantina de Estudios Ingleses* 14: 213-47.
- Muecke, Douglas Colin (1970) *Irony*, London: Methuen.
- Newmark, Peter (1993) *Paragraphs on Translation*, Clevedon &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132-33.
- Simpson, Paul (1993) *Language Ideology and Point of View*,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분석 텍스트>

- 채만식 (2004) 「치숙」, 『하서명작선: 레이메이드 인생』, 서울: 하서.
- 채만식 (2006) 『태평천하』, 과주: 창비.
- Chun, Kyung-Ja trans. (1993) *Peace Under Heaven*, New York & London: M.E. Sharpe.
- Fulton, Bruce and Ju-Chan Fulton trans. (2005) 'My Innocent Uncle', in Bruce Fulton and Youngmin Kwon (eds) *Modern Korean Fiction: an Anth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Suh, Ji-Moon trans. (1998) 'The Idiot Uncle', in *The Rainy Spell and Other Korean Stories*, New York: M.E. Sharpe/UNESCO.

[Abstract]

### Translation of Irony in Chae Mansik's Satirical Fictions

Han, Miae

(Dongguk University\_Seoul)

This paper analyzes and investigates the translations from Korean into English of ironic elements in satirical fictions, “Innocent Uncle” and *Peace Under Heaven*. The analysis frameworks are four ironic elements provided by Muecke (1970): ‘the contrast of reality and appearance,’ ‘the element of innocence or confident unawareness,’ ‘the element of detachment,’ and ‘the aesthetic element’. A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target text of “Innocent Uncle”, the second is better than the first in that the four elements are adequately translated in it for ironic and satirical effects. And in *Peace Under Heaven* the element of detachment conveyed by free indirect speech, or narrator interference, and the aesthetic element by oral narration are usually not translated in the target text. This can be problematic in terms of ironic effects, since the four ironic elements ar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phenomena which have only some of these features will not be regarded as irony, as Muecke pointed out. We need to be aware that translating these narrations is important for embodying satirical and ironic characters in satirical fictions, and that especially oral narration helps a narrator to organically construct episodes. Therefore, in translating satirical works, we should identify the presence of ironic elements in source texts and translate them adequately.

▶ Key Words: satire, irony, ironic elements, free indirect speech, oral narration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hanmarian@daum.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7일